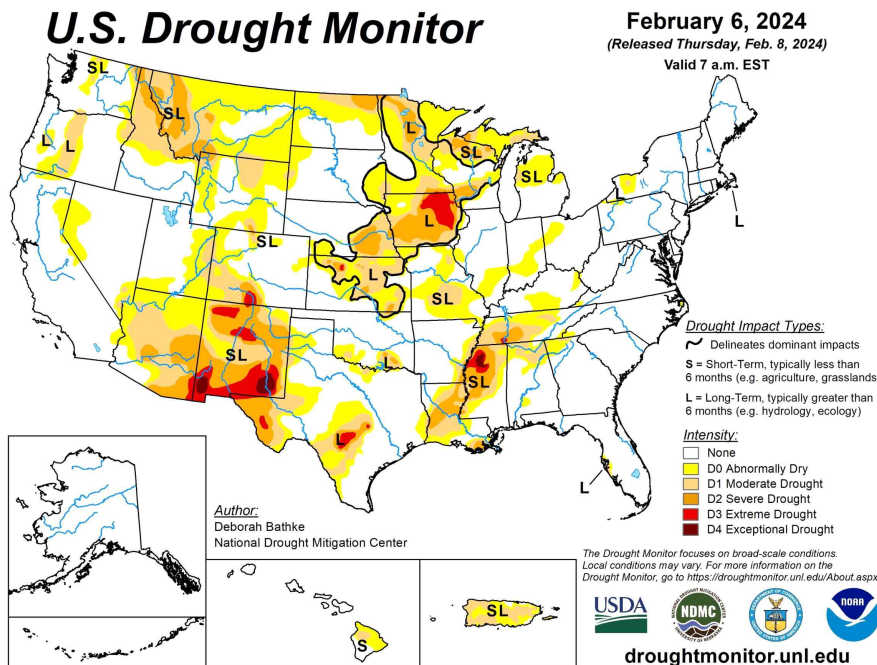


2월 1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7)

□ 미국 기후 현황(2/4-2/10)

서부의 폭풍우가 2월초까지 이어지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부터 남서부까지 연속적인 전선들이 맹렬한 비를 그리고 고지에는 눈을 날렸다. 캘리포니아 남부가 특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총 4-12인치의 강우가 돌발 홍수와 암설류를 일으켰다. 캘리포니아 수자원부에 따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기간 동안 시에라네바다에 쌓인 눈의 물 당량 평균치는 5인치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이는 평년 대비 대략 50 퍼센트에서 75 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몬테나와 노스다코타 일부에 눈이 쌓이기는 했지만 평원에는 일반적으로 강수가 가볍게 내렸다. 대체로 강수가 중서부를 지나쳤기 때문에 진흙탕 조건이 제한 요소가 아닌 지역에서는 비수기 농업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2월 8일 소규모의 악천후가 발생하여 북쪽으로 멀리 위스콘신 남부까지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 이는 해당 주에서 기상학적 겨울의 마지막 달에 일어난 것으로서는 처음이었다. 그밖에 서부 폭풍우 중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남부에, 주로 텍사스 동부에서 애팔래치아 남부까지, 총 1~3인치의 비를 내렸다. 2월 11일에 또 한 차례의 폭우가 남부를 강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실릴 예정이다. 한편, 2주 연속 평년을 상당히 웃도는 높은 기온이 평원, 중서부 및 북동부를 지배했다. 평원과 중서부 전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20° F 높았고 따뜻함이 북동부까지 확장되었다. 평균 수치도 오자크 고원을 포함하여 남부 중앙 지역까지 평년보다 최소 10° F 높았다.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선선한 날씨가 캘리포니아와 사막 남서부뿐만 아니라 대서양 남부 지역을 덮었다.



□ 농업 현황 요약

자료 없음

□ 세계 기후 현황(2/4-2/10)

■ 유럽: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한 날씨가 대륙 대부분에 걸쳐 만연했으며 서유럽, 중유럽 및 북유럽에는 소나기가 추가로 내렸으나 남동부 재배 지역은 건조한 날씨에 자리를 내주었다. 비정상적인 따뜻함 (평년보다 3-8° C 높은)이 거의 모든 곳에서 만연했으며 유럽 남동부에서는 훨씬 더 큰 이상 기온 (평년보다 9-11° C 높은)이 나타났다. 그리스와 발칸 반도 남부 전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0도 초반에 도달했는데 이는 4월 말에 관찰된 전형적인 최고 기온과 더 비슷하다. 그런 비정상적인 따뜻함이 유럽 남동부에서는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이 평년보다 1달 이상 더 앞서 휴면을 벗어나도록 재촉했고 유럽 북서부와 남서부에서는 각각 겨울 작물의 녹화와 영양 성장을 추가적으로 촉진했다. 유럽 대륙의 겨울 밀, 보리 및 유채가 아주 일찍 녹화되는 것이 수확량 잠재력 그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물들이 내한성을 잃었고 그 결과 늦은 계절에 올지도 모르는 극한 추위에 더 취약하다. 사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핀란드의 중부와 북부의 날씨는 다시 급격히 더 추워졌다 (평년보다 4-9° C 낮은). 스페인, 프랑스 및 영국에서부터 동쪽으로 폴란드까지 적당하거나 심하게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들 (10-10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이 봄 성장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유지해주었다. 반대로, 유럽 남동부는 대체로 맑아서 계절 야외 작업에 유리했다.

■ 구소련(서부):

자료 없음

■ 동아시아:

자료 없음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에 산발적인 소나기 (5-25 mm)가 내려서 면화와 수수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평균 내지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주어 작물의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이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 C 높았고 최고 기온은 동부의 섭씨 30도 초반에서부터 서부의 30도 후반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남쪽으로 갈수록 폭우 (10-50 mm 이상) 대역이 뉴사우스웨일즈 중부와 남부로 확산되면서 여름작물들의 물 요구량을 줄여 주었는데 이 지역의 여름작물들은 주로 관개된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 C 낮았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30도 후반이었다.



■ 아르헨티나:

비가 광범위하게, 국지적으로는 폭우가 내려 거의 모든 농업 지역들에서 더위와 건조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해소해주었다. 총 25-50 mm의 강우가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북쪽으로 산티아고델에스테로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을 덮었는데 더 북쪽에 여러 개의 건조 소구역 (25 mm 미만)이 기록되었을 뿐이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에 가장 많은 양 (100 mm 초과)이 집중되어 2기작 대두의 발아와 활착에 필요한 수분을 적기에 공급해주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남부 농업 지역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부분을 포함하여)에서는 평년보다 1-2° C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4-6° C 높았으며, 낮 최고 기온은 강우가 시작되기 전 거의 전국적으로 섭씨 30도 후반에서 40도 초반에 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2월 8일 현재 17 퍼센트 수확되었고 (작년은 21 퍼센트), 야외 작업은 더 일찍 성숙하는 북부 생산지에 집중되었다.

■ 브라질:

보통 내지 강한 소나기가 내려서 브라질 중부 및 북동부 대부분에 걸쳐 두 번째 재배기의 옥수수과 면화에 대한 전망을 더욱 개선했다. 변동성이 매우 높기는 했지만, 미나스제라이스에서부터 마란하오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을 포함하여, 마투그로수 북부에서부터 동쪽으로 있는 대부분의 지점들은 총 25-100 mm의 강우를 기록했다. 이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 수준 내지 평년보다 평균 2° C 높은 범위를 보여주었고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초·중반에 달했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대두는 2월 9일 현재, 작년의 44 퍼센트와 비교해서, 52 퍼센트 수확되었다; 옥수수와 면화의 파종은 각각 42 및 99 퍼센트 완료되었는데 이는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보다 앞선 것이다. 더 습한 북부 조건과 달리 더 남쪽은 계절에 맞지 않는 더위와 건조로 만연하여 마투그로수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히우그란지두술 전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점들에서 총 강우량이 25 mm 미만이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더운 날씨가 그런 건조함을 동반했는데,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 C 높았으며 낮 최고 기온은 30도 중반에 이르렀다. 미성숙한 여름작물들에게 계속해서 수분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보다 정상적인 강우 및 기온 패턴으로 돌아가야 주요 남부 생산 지역 내 미성숙한 옥수수와 대두의 현 수확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나의 초작 옥수수와 대두는 2월 5일 현재 각각 36 및 25 퍼센트 수확되었다; 2기작 옥수수는 32 퍼센트 파종되었고 생식에 도달한 작물은 없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2월 8일 현재 작물 파종이 거의 완료되었고 약 60 퍼센트가 익거나 수확되었다; 한편 대두의 3분의 2가 개화에 이르렀다.